
문과대 여성모임(준)에서 각 선본에게 물었습니다!!

문과대 여성모임(준)에서는 이번 문과대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문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각 선본에게 보냈습니다. 이 질의서는 지난 10월 말, 92명의 문과대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단지 한 표를 수동적으로 찍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선거를 의사소통과 논쟁의 장으로 사고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문과대 내에서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질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각 선본에게 11월 4일에 질의서가 전달되었으며, 11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격변예고 선본은 질의서를 한 번 분실하여 13일에 제출했고, 빈란외 서직 선본에서는 질의서를 역시 한 번 분실하여 1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좌표 선본에서는 두 번 분실하여 12일에 제출했습니다.

질문 1. 문과대에는 현재 꽤 많은 자치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대에는 문과대 동아리 연합회나 자치단체 연석회의와 같은, 자치단체(혹은 동아리)를 묶는 틀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공간이나 제정이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일텐데요. 문과대 여성모임(준) 또한 문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긴 지 얼마 되지않는 자치단체이기에 공간과 제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활동에서 질곡이 되는 것은 공간과 제정의 문제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학생회들은 선거 때에 학생회 중심성을 벗어나 자치단체들의 자율적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 선본은 자치단체와 학생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과대 자치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격변예고

해마다 학생회 선거에서 내놓는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들의 자율적 흐름 보장, 자치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회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와의 연계, 혹은 지원 등은 지금까지 대부분 학생회의 의지-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학부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문과대 학회연석회의의 문제의식이나, 공간투쟁을 계기로 묶여졌던 동아리협의회의 테이블도 그러하기에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격변예고' 선본은 기본적으로 문과대 학생회가 문과대 내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문과대 내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과대 자치단체의 활동보장에 있어서는 예산자치제를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과대 내에서 논의되었던 학생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맺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틀거리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틀거리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매개고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과대 학생회비의 20%를 예산자치 특별기금으로 배치하고, 예산자치제가 단순히 재정지원에만 그치지 않도록 자치단체협의회에서 예산배분, 공동의 자치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치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학생회비의 20%를 책정하고 자치운동이 전면화될 수 있는 피드백 장치로서 자치단체협의회를 건설하는 것은 문과대 자치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란의 시작

저희 선본의 정책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선본은 학생정치, 특히 학생회 정치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학생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학생총회와 같은 형식으로 극복될 수 없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사'는 결코 대표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의 학생회는 일년에 있는 단 한번의 선거를 통하여 마치 학생회가 대표성을 선취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회의 정치성과 대중성은 끊임없는 충돌과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학생회의 대중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선거를 통하여 완결된 것이 아니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포장해서도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치를 소중히 하고 그 의미를 적극적·급진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학우들의 의사가 제한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3000문우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이에 기반한 학생회 활동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재판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치의 조직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학생회가 자치의 흐름을 전적으로 대표한다거나 자치의 흐름, 즉 자발성을 학생회가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학생회 집행부가 지니고 있던 물적·제도적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포기를 통한 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이를 통해서 생성되는 자치의 흐름이 학생회 질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선본은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두가지 중심적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치단체 연석회의입니다. 자치단체연석회의는 문과대 내에 있는 동아리·소모임·학회들이 모두 모여서 예산과 공간 그리고 학생회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논의할 예산자치제와 관련하여 자치기금의 규모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자치기금의 사용원칙에 대한 내부 원칙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간 역시 예산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고제나 대동제와 같은 학생회의 행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연석회의를 통하여 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자치제는 학생회가 공식적으로 '해오름'하기 이전에 자치단체 연석회의와 논의를 통해 자치기금을 조성하고 이 자치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연석회의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단체 연석회의 내에서의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에 예산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자치기금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비율은 학생회의 일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학생회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하에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좌표

먼저 '학회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회 구성원들이 수적으로 적어지고 있고 사회과학을 위주로 공부하는 학회도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 학회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기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회 성원 재생산 기지로서 공동체의 정치적 정체성을 활발히 논의하던 학회들의 위기는 분명 극복하고 시정해 나아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학회들의 위기를 자치질서의 위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소모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중심이 사회과학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형성되는 소모임 중심의 자치질서의 학회로의 제단결을 강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시기는 학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을 학회로 대표되던 자치단체들의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면한 자치질서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발전적으로 조직화, 지원하는 것이 제 36대 문과대 학생회가 해 나갈 일이 될 것입니다. 문화중심적인 소모임들이 정치성의 담보해낼 수 있고 비판적 지성인의 단체로 그 성격을 폭넓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자치질서는 말 그대로 공동체의 질서를 탄탄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생활도서관에서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의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질문 2. 문과대 여성모임(준)이 올해 주장해왔고 많은 문대의 여학우들이 동참했던 '여학생 휴게실 달라'는 요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격변예고

다.

여학생 휴게실의 문제는 단순히 공간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상대적 소수자인 여성의 권리를 되찾는다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타단대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많은 문과대이기도 하지만, 과방이나 인문관 로비의 휴게공간 등에서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격변예고' 선본은 문과대 내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여학생 휴게실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람의 시작

어떤 사람들은 여학생 휴게실이 공대나 상대와 같이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과대이나 필요한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학생 휴게실이 단순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시선을 피하여 담배나 피는 그런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올해 문과대의 공간투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공간이라는 것은 특히 권력구조에 있어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해방구 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파리 노동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안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구획 지었을 때 그것은 곧 해방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학생 휴게실의 설치하는 여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결코 복지의 측면에서만 사고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일상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에게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을 때 그것은 결코 물리적인 의미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은 문과대 여성모임(준)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꼭 마련되어야 하며 저

희 선본에서는 인문과 지하에 공간을 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휴게실에 필요한 집기는 문과대 여성모임(준)과 협의하여 학생회가 문과대 행정당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좌표

우선 여학생 휴게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학생 휴게실 문제는 저희 선본에서도 내년도에 꼭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년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공간투쟁으로 얻어낸 공간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공간의 재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재배치의 기준은 우선 문독, 과방공간, 복지공간, 그리고 자치단체 공간으로 나누어지며, 합리적으로 각단위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배정할 것입니다. 물론 각 단위들의 자율이 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복지공간에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우들의 대표성을 갖는 여학생 모임과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여학우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틀이 잡혀나갈 것입니다.

질문 3. 이번에 문과대 여성모임(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문과대 대다수의 여학우들이 화장실 사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학생의 비율이 70%나 되는 문과대의 상황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변예고

여학생의 비율이 70%나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과대 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미비하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이며, 대학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학교당국에서는 장애인 전용리프트 설치와 관련해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여성 복지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격변예고' 선본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여성·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복지시설의 문제에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인문관과 제 2인문관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과 열악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여학생 휴게실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학교당국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반란의 시작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학생과 관련된 복지는 결코 복지 자체로 사고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문과대 내 여성 복지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문과대 내에 여성주의 질서가 온전하게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선본의 기본적인 인식이 '정치적 일상화 일상의 정치화'라 할 때 여학생 복지의 문제도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선본에서는 현재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생리대·화장지 자판기의 설치와 여자 화장실 내에 가방걸이 부착을 공약으로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대좌표

여학생들의 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들 역시 저희 공약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여학생 휴게실, 여학생 화장실 문제, 생리대 자판기 문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사안을 저희는 여성문제의 가장 큰 공약으로 내년도에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여학생 휴게실 문제는 위 질문에서 답변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여자 화장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로(모니터링과 여성모임과의 대화 등)를 통해서 현재의 여자 화장실의 공간이 좁다는 점과 거울이 작다, 선반이 작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화장실의 증축 문제는 현재 실현성이 별로 없습니다.(여기서의 실현성은 학교측과의 이야기가 잘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현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개축을 하겠다고 보장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내부의 개선문제 만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선반과 거울 등의 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대 자판기의 증설을 이룰 것입니다.

이상의 여성복지시설은 저희 선본에서 조사한 것들일 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복지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여학생 비율 70%에 걸맞은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질문 4.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를 주축으로 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작년부터 우리학교 총여학생회를 포함한 19개 대학의 여성운동단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이하 beyond)에서는 사회대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을 올해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벌여내고 있습니다. 특히 beyond의 경우에는 학교가 강제하는 학칙의 형태 이전에 우선 학우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자치규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성폭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과대 안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적변세고

학내 성폭력은 성폭력적 사회구조와 문화에 기인하는 사회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에서 벌이고 있는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공동체 내부에서 활발한 논쟁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문화적인 강제력을 지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은 자치운동으로서 제안되었던 것이기에 각 단위에서 자치규약 제정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성폭력은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성폭력은 공동체 내에서 얘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우리는 공동체 문화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운동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인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각자 자신의 단위의 성문화를 고민해 보고 서로 공유된 내용을 자치규약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가고 적용해 간다면, 지금까지 누구나 얘기해왔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란의 시작

자료집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폭력에서 대학사회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성대 총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은 대학사회의 구체적인 일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일상은 하나의 주체로서의 여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저희 선본에서는 성교육 주간선포를 공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가령 '섹시하다'라는 말)은 성폭력의 근절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요인입니다. 성교육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대학내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의 사례를 고발하고 각종 행사(토론회, 간담회, 영화제, 강연 등)를 통하여 이에 대한 열린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선본은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측에 의한 일방적인 학칙제정보다는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통하여 자치의 흐름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본이 당선될 경우 문과대 학우들의 대표체로서, 일상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닌 집단으로서 학내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위하여 문과대내 여성자치조직과 적극적인 연대를 하고자 합니다.

시대좌표

우선 성폭력이란 인권유린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문제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을, 범죄의 행위를 학내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도 물론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자치질서의 차원에서 자치질서만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성폭력 학칙제정은 연세 전체의 차원에서 함께 벌

여나가야 할 운동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모든 연세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저희는 성폭력을 자치질서 내에서의 범죄라는 측면에서 대응할 성폭력 근절 법안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범연세적인 운동을 타단대와의 연계, 총학, 총여와의 연대를 통해 벌어나갈 것입니다.

질문 5. IMF위기 이후 실업의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였지만 특히 여성노동자는 '집에서 애나 봐라' 혹은 '현모양처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라'라는 사회적 강요 속에 끊임없이 가정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원서를 받아보기도 힘들다는 여대생들의 목소리가 보여주듯이 여대생 신규실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대생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여대생 신규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변세고

95학번들이 졸업하게 되는 내년 2월이면 청년실업자가 100에 가까울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자, 혹은 정리해고자 속에는 여성실업자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없어왔다. 정리해고 1순위였던 여성노동자는 어느 것에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허덕이는 여성노동자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고 있으며, 졸업하게 되는 여성대졸자는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98년 2학기부터 문과대 내에서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고용안정특별법에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장애인, 여성,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보장, 고용확대의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를 철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성실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의무고용을 확대할 것을 각 기업에게 요구할 것이다. 여성실업의 문제는 '여성'과 '실업'의 두가지 부분에서 모두 해결책을 요구해야 하며, 전체 실업문제와 함께 고용안정특별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란의 시작

여성실업 문제는 청년실업문제와 같이 실업문제에 있어 하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사업장을 덮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돌아가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여성의 무임금 노동, 즉 남성이 가장 노동력의 효과적인 재생산이 구조조정에 있어서 매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지극히 남성중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비단 지배세력뿐만 아니라 진보세력 일각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실업 문제는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에 기반한 여성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우선적 정리해고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성적차별이라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실업 문제 역시 바로 현시기 남한 자본주의가 지닌 모순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을 때 연대의 원리가 여성실업 반대운동에서도 중심적인 지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모든 자치운동에 있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저희 선본에서는 딱히 여성실업 문제와 관련된 투쟁방향이라던가 요구사항을 지니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문과대 여성모임(준)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하여 여성모임과의 지속적인 협의 속에서 앞으로 있을 투쟁에 그 목소리들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좌표

기존 여성실업은 물론 여대생 신규실업들은 또 하나의 억압이데올로기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현재의 여성실업(이하 여성실업이라 함은 기존의 여성실업의 의미와 신규대졸 여성실업의 의미를 포함합니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실업의 문제 중 대사회적인 면에서는 문대 차원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 총여와 연대하여 대사회적인 여성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문과대 내에서의 해결책으로 교학협의회를 통해 교수진의 노력을 촉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취업의 문제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추천서는 취업에 있어서(현재 원서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대의 교수님들은 외국인 회사들과의 연계(제자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로의)가 타단대보다 높다고 합니다. 교학협의회를 통해 남녀 모든 졸업자들의 실업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며, 특히 여대생 신규 실업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될 것입니다.(여성고용 T.O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여성만을 위한 취업준비가 아닌 남녀 공동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여성문제에 관한 저희의 시각과 대책들은 자료집을 통해서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정책 토론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